P-20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알콜섭취 실태와 비알콜성 음료의 기호도 조사

오은실. 최성미. 정복미. 차연수*. 여수수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기호식품으로서의 알콜성음료와 비알콜성음료는 우리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알콜섭취 및 과음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알맞은 비알콜성 음료는 정신적 회복제가 되지만 과잉섭취는 칼로리 과잉섭취와 지나친 흥분을 유발할 수 있어 영양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본 실험은 음료의 소비성향을 주도하는 대학생들의 알콜섭취실태와 비알콜성 음료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기호음료 문화를 보급하고, 나아가 영양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남 여수에 소재한 여수수산대학교에 재학중인 587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성별, 나이, 학년별로 그 음주실태,형태,방법 및 시판되는 비알콜성 음료의 기호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이 73.5%, 여학생이 26.5%로 남자가 여자의 약 2.7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1-25세가 월등히 높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42.2%, 3학년이 23.0%, 1학년이 19.8%, 4학년이 15%로 전반적으로 random하게 조사되어졌다.
2. 각 성별, 연령별, 학년별 조사 대상 학생들의 알콜음료 기호도와 주량을 분석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맥주나 소주를 많이 마셨고, 맥주 3병이상, 소주는 1병정도가 주량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0세이하나 21-25세의 경우 대체로 맥주 및 소주를 1병이상 마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 26-30세의 경우는 맥주 및 소주마시는 기호도나 주량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특이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맥주 및 소주와 더불어 양주섭취 비율도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탁주 및 과일주의 기호도나 주량은 모두 낮은 비율을 보였다.
3. 술마시기 전 및 후에 섭취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술마시기 전은 남녀학생 모두 밥이 월등히 높았으며, 우유가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술마신 후에는 모두 물을 마신다는 대답이 단연 1위였고, 남학생은 밥, 라면, 콜라가 다음 순위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밥, 우유, 과일안주 순으로 나타났다.
4. 남녀 대학생들의 비알콜성 음료의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 콜라가 단연 1위였고, 남학생들은 배즙, 대추음료 순위였으며, 여학생들은 배즙음료, 오렌지쥬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사이다는 비교적 낮은 기호를 보였다.